

31 제철소 정비작업자에서 발생한 T세포림프종

성별	남성	나이	36세	직종	정비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는 2012년 5월 24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014년 가을부터 체중감소, 식욕저하,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대증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2월경부터는 편도 및 임파선이 부었고 2개월이 넘도록 호전을 보이지 않아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편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보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종합병원에서 2015년 5월 14일 좌측경부 조직검사상 T세포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2015년 5월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로 전원되어 치료받던 중 2016년 3월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분진가루와 씻물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T세포림프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5년 9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2016년 4월 4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정비직으로 2012년 5월 14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약 3년간 근무하였다. 근무 당시 주업무는 래들반 래들 수리작업(래들 산소세척 및 노즐 교환)이었다. 근무 형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는 3조 3교대 1일 8시간 근무였고,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4조 3교대 1일 8시간 근무였다. 래들 작업은 하루에 약 100개 정도를 하며, 1개의 근무조(9명)당 32개 정도하게 된다.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인자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4년 가을부터 체중감소, 식욕저하, 식은땀, 잦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5년 2월 편도 및 임파선이 부어 두 달 동안 수액을 5~6번 정도 맞으면서 지켜보다가 호전 보이지 않아 개인병원에서 편도 조직검사 결과 이상소견 보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경부 조직검사상 T세포 림프종 진단 받고 2015년 5월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3월 사망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가족력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회력 상 하루 3/4갑씩 10년간의 흡연력(7.5갑년)이 있었으며 음주는 주 1회회당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12년에 입사하여 약 3년간 래들반 래들 수리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고무생산공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벤젠, 산화에틸렌, 2,3,7,8-TCDD, TCE, 엑스선 및 감마선, 폴리클로로페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비호지킨림프종(T세포림프종)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